



기아 (000270)

2024 CEO Investor Day 후기: 이익체력 증명에 대한 자신감

Buy(유지)

목표주가 135,000원, 현재 주가(4/5): 105,000원

▶Analyst 김성래 sr.kim@hanwha.com 3772-7751 / RA 권지우 jiwoo.kwon@hanwha.com 3772-7689

요약

- 동사는 최근 EV시장 수요 둔화, 중국 브랜드 부상 및 경쟁환경 변화 등의 1)대외 상황을 고려한 대응 전략과 이를 기반으로 한 2)2030 중장기 판매목표 및 3)재무전략을 금번 '2024 CEO Investor Day'를 통해 업데이트하여 제시
- 2023년 제시한 2030년 430만대, EV 160만대 판매 목표 유지하되 EV 대중화 모델 출시, HEV 라인업 확대 및 신형시장 경쟁력(상품성,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강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PBV사업을 통해 신규 수익원 창출
- 경제형 EV 라인업 확대 및 차세대 HEV 시스템 적용으로 xEV 중심 시장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ICE 수준의 xEV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장기 두 자릿수(10+%) 수익성 지속 달성
- PBV, SDV, AAM/로보틱스 등 미래사업 전환에 15조원 투입하는 금액 포함하여 2028년까지 총 38조원 투자 계획 제시
-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제시했던 주주환원 계획에 대한 이행에 초점. 당기순이익 기준 20~35%의 배당성향 및 연간 5척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매년 주주환원을 30% 이상 이행 추진

주요 내용

1) 대외환경 변화 대응: EV시장 수요 둔화, 중국 브랜드의 부상, 경쟁환경 변화

① EV시장 수요 둔화 → HEV 라인업, EV 대중화모델, ICE/xEV 유연생산체계 통해 대응

- 2030년 EV시장 수요 규모에 대한 전망은 유지. 다만, ICE대비 높은 EV가격과 보조금 축소, 충전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성장 둔화('24년 글로벌 EV 수요 1,460만대 → 1,350만대, 8%↓)에 대한 대응 필요성 제시
- 이에, HEV 라인업 강화, EV 대중화모델 신규 런칭, 유연생산체계 통해 단기 시장상황 변동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
 - (HEV 라인업 강화) '24년 6차종(세단 2, SUV4)에서 '28년 9차종으로 HEV 모델 수 증가 및 기존 중형 중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소형/대형까지 3종으로 확대하여 2028년까지 HEV 80만대 판매(CAGR 21%)
 - (EV 대중화모델 신규 런칭) EV3, EV4, EV5 등 \$35,000대의 볼륨모델을 올해부터 국내를 비롯한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신형시장까지 EV 수요 상황 고려하여 지속 확대
 - (ICE/xEV 유연생산체계) 기존 공장 중심으로 혼류생산방식 전환 통해 수요변화에 유연 대응하고, 화성 등 EV전용 신공장에서는 EV 대중화모델 및 PBV 등을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 달성

(다음 페이지 계속)

② 중국 브랜드의 부상 → 신흥시장으로 고부가가치 기능/사양 확대, 중국공장 등 기존 현지 생산/판매/AS 거점 활용

- 중국 신흥 브랜드들의 급성장에 따른 기존 완성차OEM들의 시장 점유율 감소세. 특히 아중동/아태/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중국 브랜드들의 M/S는 7%대까지 상승
- 이에, 커넥티드/ADAS 상품경쟁력을 신흥시장으로 확대, 기구축된 글로벌 서비스/부품 운영체제 활용한 품질/성능 차별화 및 중국공장을 활용한 신흥시장 수요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상품경쟁력 강화) 기존 선진시장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전자/디지털화 기능을 신흥시장으로 확대. 2026년까지 커넥티드 카 서비스 적용 국가를 41개국에서 74개국으로 확대하고, 제어기 OTA 차종 및 ADAS 장착률 확대(42%→63%) 추진
 - (글로벌 서비스/부품 운영체제 활용) 장기간 구축해온 글로벌 제조/유통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각 지역별 고객 요구 특화 품질 및 성능 경쟁력을 차별화. 신흥업체들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위해서는 대규모/장기 투자가 수반
 - (중국공장을 신흥시장 수요 대응에 활용) 중국 로컬 브랜드의 2023년 역외 수출은 171만대 수준으로 아중동/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크게 확대. 국내공장 최대 생산에 따른 신흥시장 수요 대응 한계를 중국공장 capa를 통해 극복

③ 경쟁환경 악화 → 잔존가치 관리, 고객경험 제고 등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개선으로 근본적 대응

- 완성차OEM의 글로벌 생산은 정상화되는 반면 수요는 고금리 등에 따라 코로나 이전수준으로의 회복이 더딘 상황
- 경쟁심화에 따른 재고/인센티브 증가 추세를 잔존가치 관리, 디지털 원앱(one-app) 등 CX 고객접점 채널 확대와 판매 이후 서비스 요소 증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개선하여 대응하는 방식 추진

2) 중장기 판매목표: 2030년 글로벌 판매 430만대, EV 160만대, PBV 1* Mover 25만대

① 2030년 글로벌 430만대, EV 160만대

- 2030년 글로벌 판매량과 EV 물량 목표는 동일. 다만 최근 증가하는 HEV 수요 등 고려하여 ICE 대비 xHEV 비중 확대
 - 글로벌 판매량은 '24년 목표 320만대 대비 110만대 증가(CAGR 5%)
 - EV는 '24년 목표 30.7만대 대비 129.3만대 증가(CAGR 31.7%)
- '30년 친환경차(EV/xHEV)는 판매목표 248.2만대로 58% 비중이며, xHEV 비중은 20%(88.2만대)
- 중장기 글로벌 판매량 430만대 목표에 있어 주요시장(국내/미국/유럽/중국) 비중 61%으로 2023년 제시한 목표와 유사
- 주요시장에 EV Full 라인업 구축하여 2030년 EV 160만대 중 137.2만대(86%)를 주요시장에서 판매할 계획
 - '24년 EV3를 시작으로 한 대중화모델 투입 및 기존 대형EV 2종 대신 PBV 시장 진출 통한 비즈니스 확장 도모
- 신흥시장은 중국공장 활용 등 생산지 다변화를 통해 수요 증가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EV 성장 속도 고려하여 단계별 xEV 라인업 전개 예정
- 2030년 글로벌 EV 160만대 판매 목표 달성 위해서는 합리적 EV 가격 중요하므로 NCM 에너지밀도/주행거리 개선, LFP 병행 적용 통해 대중화 모델 원가 경쟁력 강화하고, 고객 EV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도 추진

(다음 페이지 계속)

[표1] 기아 중장기 물량 계획(지역별/파워트레인별)

(단위: 만대, %)

	2024				2030				CAGR (2024-2030)			
	합계	EV	xHEV	ICE	합계	EV	xHEV	ICE	합계	EV	xHEV	ICE
국내	53.0	6.4	17.5	29.2	56.0	23.0	24.1	9.0	0.9	23.9	5.5	-17.8
%	100	12	33	55	100	41	43	16				
북미	93.7	9.4	11.2	73.1	110.0	44.0	38.5	27.5	2.7	29.4	22.8	-15.0
%	100	10	12	78	100	40	35	25				
유럽	57.9	10.4	14.5	33.0	75.2	59.4	9.0	6.8	4.5	33.7	-7.6	-23.2
%	100	18	25	57	100	79	12	9				
중국	11.7	2.1	0.1	9.5	21.5	11.4	-	10.1	10.7	32.5	-100.0	1.1
%	100	18	1	81	100	53	-	47				
인도/기타	103.7	2.4	2.1	99.2	167.3	22.2	16.6	128.5	8.3	44.5	41.4	4.4
%	100	2	2	96	100	13	10	77				
Total	320.0	30.7	45.4	243.9	430.0	160.0	88.2	181.8	5.0	31.7	11.7	-4.8
%	100	10	14	76	100	37	21	42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② PBV 1* Mover 25만대

- 2024 CES에서 공개한 총 3종(PV1, PV5, PV7)을 2025년 PV5(mid PBV)를 시작으로 2027년 PV7(Large PBV) 출시하여 2030년까지 PV5 15만대, PV7 10만대 판매할 계획
 - 25만대에 대한 주요 타겟 고객층은 크게 3개군으로 헤일링 20%, 딜리버리 30%, 유틸리티 30% 목표
- 2종의 PBV는 플랫폼 개념으로서 다양한 니즈에 맞게 컨셉을 다양화한 '컨버전' 모델로 확대 가능
 - 컨버전 모델은 크게 e-Wagon(승객용)과 e-Van(카고, 오피스 등 다목적용)으로 구분, 각 목적에 맞게 캐빈(Cabin)의 디자인/구조를 변경 가능. 국내/외 특장 전문업체와의 '컨버전 클러스터' 구축 통해 B2B/B2C 컨버전 모델 다양화
- PBV 사용자의 차량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IVI(AI 네비게이션 등), 충전, 정비(원격진단/예방정비 등), FMS(차량배차 최적화) 등 다양한 고객 특화 솔루션도 제공하여 차량 판매 이외에 데이터/SW 기반 서비스 비즈니스로 확장

3) 중장기 재무전략: EV 원가절감, HEV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OPM 10+ α 달성

① EV 원가절감

- EV로의 전환 도전적이나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 현재 수익성 패러디 수준의 EV가격 책정에서 향후 양질의 상품성과 원가 경쟁력 실현하여 낮은 EV가격 정책 가능 수준으로 역량 확보하여 시장 선점을 추진
- EV 도입기(2021-2024)에서 EV 대중화기(2024-2027)로 진행중으로, '24년부터 대중화 EV 가격 공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하는 것이 중요. 차세대 EV 플랫폼 통한 공용화 효과, 배터리 최적화 등을 통해 핵심부품인 PE 원가를 45% 개선

② HEV 수익성 강화

- 기존 준중형 세단 중심 HEV 판매에서 최근 고사양 트림/옵션 선택율이 높은 중형 SUV로 HEV 판매 차종 중심 축이 변화되며 낮은 한자리 수준에서 '23년 두 자릿수 수익성 확보, 전사 수익성 제고에 기여 중
-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우 기존 시스템 대비 성능은 개선되면서 불필요한 부품은 제거하여 원가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이를 적용한 라인업 확장을 통해 2030년까지 HEV 판매비중 20% 달성하여 기존 대비 수익성 개선 추진

[그림1] 기아 유연 공급 체계 강화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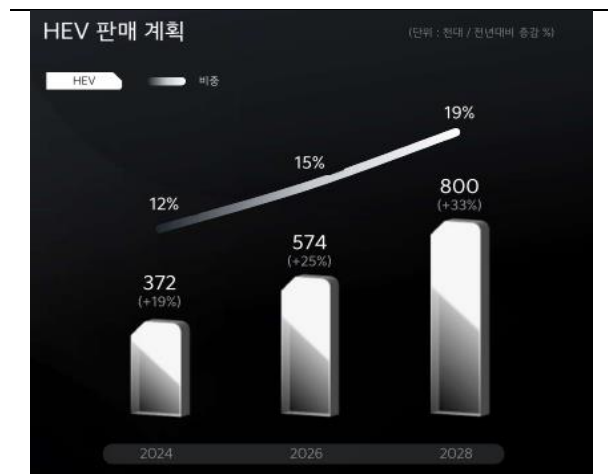
[그림2] 기아 HEV 라인업 계획

HEV 라인업 (작중수)

HEV Line-up	2024	2026	2028
Passenger	2	2	2
SUV	4	6	7
Total	6	8	9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아 HEV 판매 계획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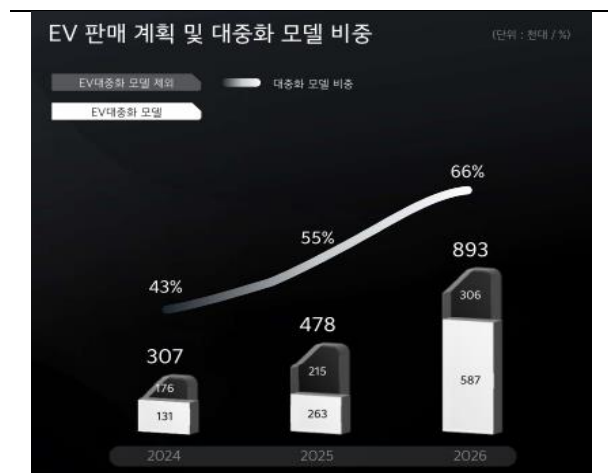
[그림4] 기아 EV 대중화 모델 라인업 출시 계획

EV 대중화 모델 라인업 (작중수)

대중화 모델 Line-up	2024	2025	2026
주요시장			
전용EV	1	4	4
파생EV	2	2	2
Total	3	6	6
신흥시장			
전용EV	2	4	4
파생EV	1	3	3
Total	3	7	7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기아 EV 판매 계획 및 대중화 모델 비중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ADAS/커넥티드 서비스의 신형시장 확대 통해 중국 브랜드 대비 상품경쟁력 차별화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보유 현지 네트워크(제조/판매/AS) 활용하여 신형시장 품질/서비스 경쟁 우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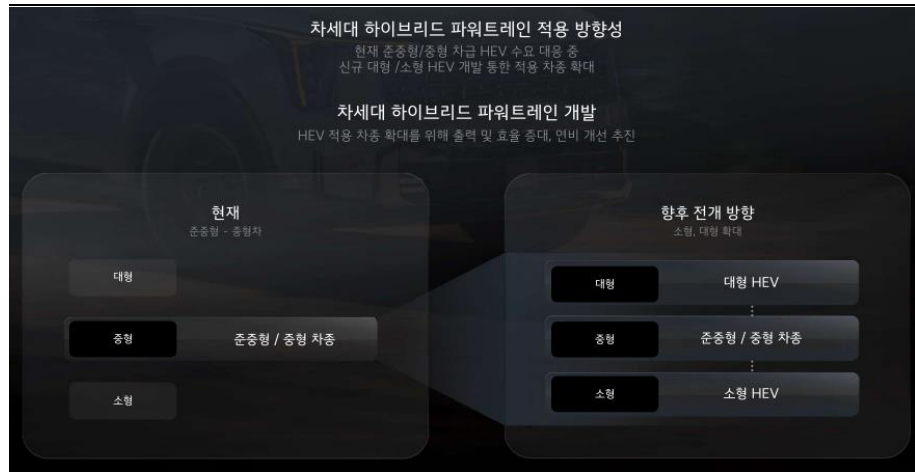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2030년 글로벌 430만대 판매에 대한 지역별 세분화 계획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존 중형에서 대형/소형 추가하여 3종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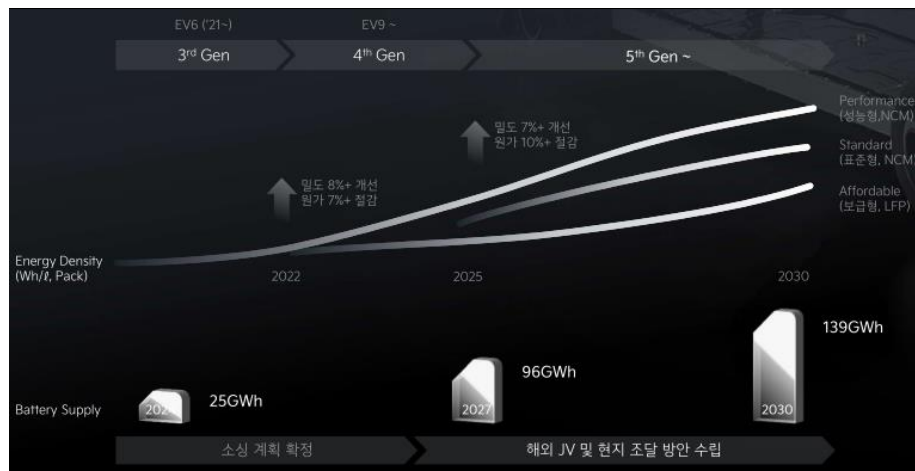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기존 플래그십 차종 중심에서 대중화모델/PBV로 차종 라인업 다양화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배터리 경쟁력 - LFP 적용 확대, 에너지 밀도 개선 및 지역별 배터리 공급체계 최적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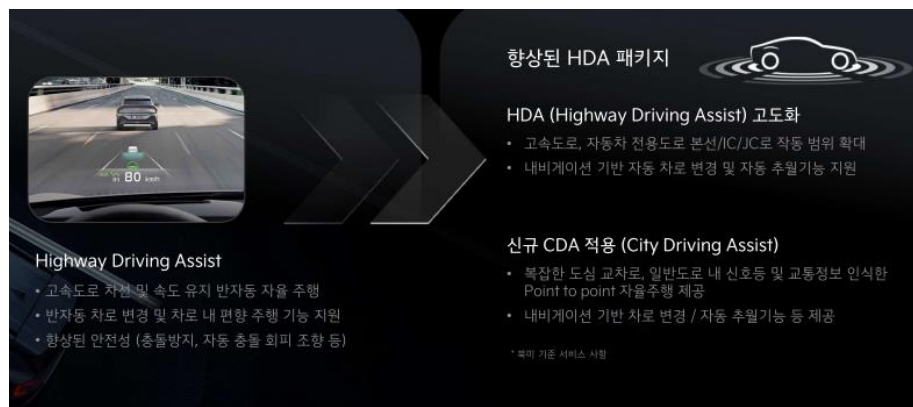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충전 인프라 확대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자율주행은 HDP 대신 기존 HDA 향상 및 도심 주행 관련 CDA 기능을 고도화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2 개 PBV 차종 기반으로 다양한 B2B/B2C 니즈에 맞게 '컨버전' 모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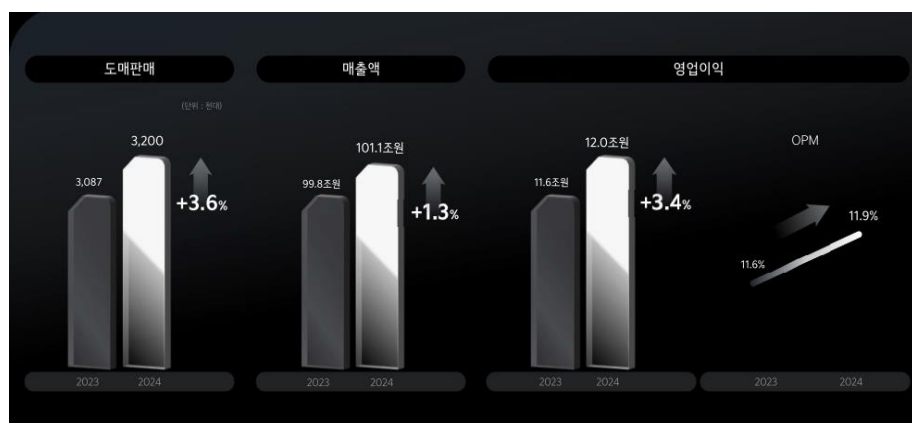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기아는 PBV 기본모델 R&D/생산 및 컨버전 생태계 구축/운영을 담당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기아 2024년 재무 사업계획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EV 원가절감, HEV 고수익화, SDV 신규 수익원 통해 중장기 OPM 10%+α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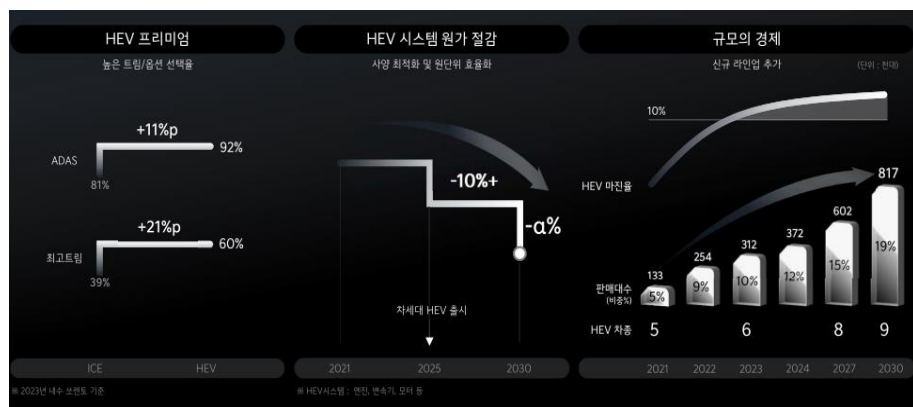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차세대 EV 플랫폼, 배터리 다각화, PE 시스템 원가 개선 통해 EV 원가절감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고트림/고사양 SUV 중심 HEV 판매 역량 활용하여 HEV 수익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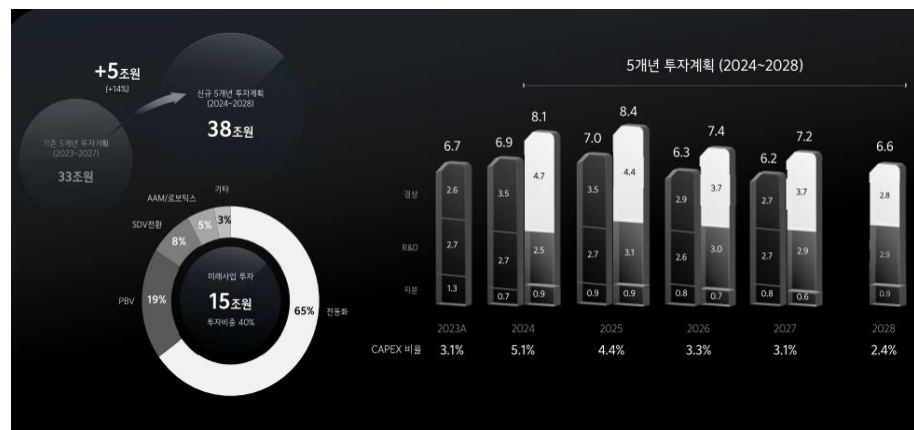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전차종 SDV 전환 기반으로 FoD 서비스 확장 및 SW 신규 수익원 창출 추진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2028년까지 5년간 38조원 투자, 미래사업 투자비중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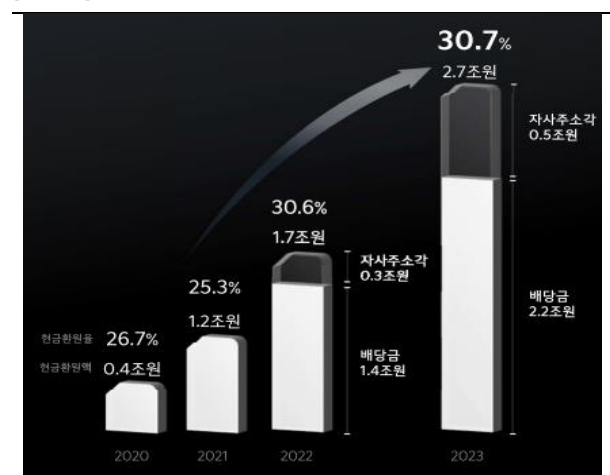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배당성향 및 자사주 매입 중심 주주환원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주주환원을 30% 이상 이행



자료: 기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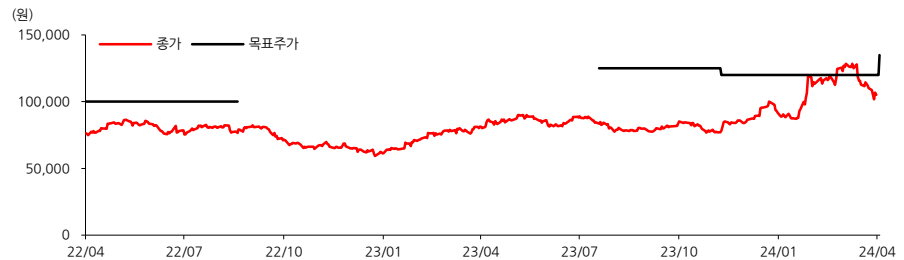
(공표일: 2024년 4월 8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성래, 권지우)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을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기아 주가와 목표주가 추이]



[투자의견 변동 내역]

일 시	2016.08.12	2022.04.14	2022.04.26	2022.06.07	2022.07.05	2023.07.24
투자의견	투자등급변경	Buy	Buy	Buy	Buy	담당자변경
목표가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김성래
일 시	2023.07.24	2023.07.28	2023.09.06	2023.10.06	2023.10.30	2023.11.03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목표가격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일 시	2023.11.14	2023.12.04	2023.12.05	2023.12.28	2024.01.08	2024.01.15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목표가격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일 시	2024.01.26	2024.02.06	2024.03.04	2024.03.07	2024.04.08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목표가격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35,000	

[목표주가 변동 내역별 괴리율]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주가 대비
2023.07.24	Buy	125,000	-35.78	-31.84
2023.11.14	Buy	120,000	-15.30	7.08
2024.04.08	Buy	135,000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4년 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5.2%	4.1%	0.7%	100.0%